

무안군 수십억 들인 물놀이장 조기폐장 물의

회산백련지에 조성...9월7일까지 운영 약속 안지켜

안전요원 계약기간 문제로 문 닫아...예산낭비 지적

무안군이 연꽃 축제기간에 맞춰 수십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회산백련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조기 폐장에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회산 백련지의 연꽃을 즐기 위해 여름철 막바지 피서객이 몰려들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물놀이 시설을 개장했다가 서둘러 폐장에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는 것이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 어린이 물놀이 시설사업에 8억2000여만 원 투입했고, 올해에도 14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910㎡ 규모의 파도풀장시설을 확충했다.

이 물놀이 시설은 연꽃 축제기간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조성됐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개장한 물놀이장은 주말

에는 인근의 광주, 목포, 나주 등지에서 하루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또 500여 대의 차량이 몰리기도 했다.

당초 무안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45일간 이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를 군 홈페이지, 인근 시·군에 홍보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폐장한 것이다.

폐장 이유는 무안군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안전요원을 단기 기간제로 지난달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채용해 놀이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요원들의 추가 근무

가 힘들어 폐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안군은 연꽃 축제장에 행사 관련해 설치됐던 음식점과 농산물판매장, 체험장 물놀이 시설(탈의실·화장실) 등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준비 없이 축제를 진행한 셈이다.

최근 이 물놀이 시설을 찾은 김모(45·광주 남구 봉선동)씨는 “가족들과 놀러왔는데 물놀이 시설이 폐장돼 아쉽다”면서 “무더위에 물놀이 시설이 조기 폐장된다면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

설계공모 내달 2일부터

150억 투입 내년 완공 예정

강진군이 병영면에 오는 2015년까지 대규모 ‘하멜촌’을 조성한다. 강진군은 24일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공모를 9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조선시대 제주도에 표착(漂着)했다가 강진 등에서 억류생활을 했던 네덜란드인 하멜을 관광자원·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오는 2015년까지 하멜기념관 일대 4만1643㎡에 국비 90억원 등 총 150억 원을 들여 하멜촌 조성사업을 벌인다.

공모를 통해 전라병영이 위치했던 병영면의 역사적 장소성을 회복하고 실시계획을 거쳐 2015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공모 신청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강진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달 2일 참가 등록과 함께 현장 설명회에 참가해야 한다.

응모작품은 오는 11월 12일 하루 동안 접수한다. 당선작은 오는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업체)에게는 기본 및 실시시설 용역권을 부여한다. 우수상과 가작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상금을 줄 예정이다.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선박 선원으로 1653년 일본으로 가던 중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착했다. 서울, 강진, 여수 등에서 13년간 유배생활을 했는데 강진 병영성에서 7년을 살았으며 1666년 탈출, 귀국했다. 당시 한국에서의 억류생활을 담은 ‘하멜 표류기’를 발표해 우리나라를 서양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하멜촌 설계는 공모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문의(061-430-3742). /고흥=주각중기자 gju@



꽃망울 터뜨린 아리연의 자태

최근 함평군 대동면 함평 자연생태공원에서 아리연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함평 자연생태공원내에는 아리연 외에도 100종의 수련이 활짝 피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함평군 제공>

신안 도초농협 고품질 시금치 재배 영농기술 교육

농협안성교육원(원장 김육근)과 도초농협(조합장 박성재)은 지난 22일 도초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시금치재배 조합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주산지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안성교육원의 ‘찾아가는 현장교육 서비스’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영농 교육은 고품질 시금치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평소 시금치 재배시 느꼈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새로운 재배기술까지 익힘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였다

농협안성교육원 김육근 원장은 “앞으로도 원거리 조합원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주산지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농협 안성교육원과 도초농협이 공동으로 22일 도초농협 대회의실에서 시금치 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영농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 소식

군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

중동지구 51억원 지원

군산시가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국가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65억원중 국·도비 5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국 1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은 총 100개 사업지구가 선정돼 사업평가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군산시 중동지구는 사업의 독창성, 주민역량, 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관심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산시는 그동안 2001년부터 13년 동안 총 22개 지구(공동주택 건립방식 5개 단지, 현지 개량방식 17개 단지) 등 도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동학혁명 120주년 경북 상주시 학술대회

경상도의 동학 조영

기념재단 내일 개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김대근)과 한국사연구회(회장 신영우·충북대 교수)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26일 오후 2시 경북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확보한 ‘학초전’ ‘소모사실’ 등 경상도 예천, 상주, 김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경상도 북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개상황을 살펴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학초전’을 통해 살펴 본 경상도 예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신영우·충북대 교수) ▲‘소모사실’과 경상도 상주·김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장계실기’와 의흥·군위·칠곡 지역의 동학농민혁명(김봉근·순천대 연구교수)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현황과 과제(문병학·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등 주제논문이 발표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당시 조선 전역에서 얼마나 전국적인 사건이자 동아시아의 전환을 가져온 거대한 사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전국 최대 블루베리 생산지 우뚝

136ha서 올 520t 105억 매출

순창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블루베리 생산지로 나타났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는 최근 11개 읍·면 재배농가 112명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재배현황과 생산량, 유통방법, 수입 등에 대해 면접 및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순창군의 블루베리 총 재배면적은 136ha로 전국 최대의 생산지로 나타났으며 1000㎡당 생산량은 382kg, 판매액은 773만원으로 집계됐다.

출하 형태별로는 직거래 비중이 92.4%로 전년 대비 12% 늘었으며, 도매시

장 4.4%, 기타 자가소비 3.2%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순창지역에서 블루베리 520t을 생산, 105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소득작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판매액으로 블루베리가 순창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확고히 자리 했음을 보여주었고 있다.

순창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품질의 고급화와 함께 직거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강구하는 등 순창 블루베리 명품화를 위한 추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NAVER **단비플라워** 농협(박배성) 302-0316-649511

죽아와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아주 싼 녹지지역
전원주택 및 사찰 부지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보전녹지지역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 관리·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